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0901

갑: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학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을: 윤리 문제는 ‘좋은’, ‘옳음’ 등과 같은 도덕 언어의 분석, 도덕규범에 대한 관한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갑: 네 의견에 동의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도덕규범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을: 그렇지. 생명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과 같은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의 윤리학은 ㉠

- ①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해.
- ② 인접 학문 영역과는 분리된 윤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해.
- ③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해.
- ④ 윤리학이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 성립 가능함을 탐구해야 해.
- ⑤ 구체적 도덕 문제에 도덕규범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해.

2. (가), (나) 사상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0903

(가) 새벽에 잠을 깨면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돈한다. 마음이 세워졌으면 일어나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 몸을 단속한다. 이와 같은 수양으로 덕을 닦아 인의(仁義)를 지켜 나가야 한다.
 (나) 여러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法)이다.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공(空)이라고 말한다.

- ① (가)는 홀로 있을 때 삼가는 태도[愼獨]를 강조한다.
- ② (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한 바라밀의 실천을 중시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친소(親疏)를 구분하는 사랑을 중시한다.
- ④ (가)는 삼독(三毒)의 제거를, (나)는 욕망의 절제를 강조한다.
- ⑤ (가), (나)는 사랑의 실천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를 것을 강조한다.

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160613(윤사) 변형

갑: 도덕 판단의 기준은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 따라서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을: 도덕 판단의 기준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균주에게 달려 있다. 쾌락 추구하고 고통 회피가 입법의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쾌락과 고통의 양은 계산될 수 있다.

- ① 갑: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여야 한다.
- ② 갑: 의무를 따르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을: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덕 원리를 따라야 한다.
- ④ 을: 감각적 쾌락을 배제하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유용성을 도덕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보아야 한다.

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160906(윤사)

(가) 갑: 다름의 입장에서 보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 처럼 멀지만, 같음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모두 하나이다. 성인(聖人)의 덕(德)에서 나오는 조화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소요(逍遙)한다.
 을: 모든 것은 시비(是非)의 정해짐이 없고, 선(善)이 있는 곳에 불선(不善)이 있고, 얕이 있는 곳에 알지 못함이 있다. 성인의 지해도 아래에서 보면 지혜이지만, 위에서 보면 무명(無明)이다.

(나)

- ① A: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있는가?
- ② B: 백성의 무지(無知)를 덕으로 교화하는 데 힘써야 하는가?
- ③ B: 수양을 통해 자신이 고집하는 알[知]을 제거해야 하는가?
- ④ C: 참된 지혜는 인간의 말과 글[言說]로써 고정될 수 있는가?
- ⑤ C: 참된 자아를 깨달을 때 무명(無明)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5.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917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였다 흩어지는 자연의 과정이다. 생명을 얻음은 때를 만나서 태어난 태어난 것이요, 생명을 잃음은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때에 맞게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운명에 순응한다면 슬픔과 즐거움이 들어올 수 없으니, 이것이 옛사람이 말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풀어줌’이다.

- ①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아 고락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삶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도(道)를 따라야 한다.
- ③ 내세의 행복을 위해 선업(善業)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아 인의(仁義)의 삶에 힘써야 한다.
- ⑤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상례(喪禮)를 통해 애도해야 한다.

6.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0605

갑: 성은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은 그것의 자연적 결과인 출산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에 있다.

을: 성은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에 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갑: 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② 갑: 성은 혼인 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을: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④ 을: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갑, 을: 성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이다.

7.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60903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는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

<보 기>

ㄱ.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ㄴ. 사랑은 상대방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ㄷ.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ㄹ.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규 문항

갑: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 될 수 있는 대로 그것과 상관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

을: 모든 좋고 나쁜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는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자는 사려 깊음을 통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 ① 갑: 철인(哲人)은 죽음 이전에도 참된 지혜를 완전하게 알 수 있다.
- ② 갑: 죽음은 인간이 완전한 세계에서 불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 ③ 을: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원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을: 죽음은 인간이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하므로 두려움의 대상이다.
- ⑤ 갑, 을: 내세의 행복을 근거로 하여 불멸의 욕망을 실현해야 한다.

9.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1002

갑: 잘 산다는 것은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다. 잘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정화될 필요 없이 순수한 상태의 영혼을 간직한 채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을: 호기심과 잠담은 타인들에 기초하여 현존재의 비본래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극단적 가능성인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 현존재의 본래성을 이해하게 된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고통의 과정이다.
- ② 갑: 죽음을 통해 영혼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③ 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을: 죽음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현존재가 본래적으로 존재한다.
- ⑤ 갑, 을: 죽음 이후에 비로소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10.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규 문항

(가)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뜻이 있는 선비와 인(仁)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는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를 일컬어 인연법(因緣法)이라고 한다.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 ① (가): 죽음을 예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다.
- ② (가): 도덕적 가치의 실현과 목숨의 유지 사이에는 경중의 차이가 없다.
- ③ (나):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고통을 겪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 ④ (나): 선업(先業)을 많이 쌓으면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된다.
- ⑤ (가), (나): 죽음 이후의 삶이 불확실하므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